올 추석연휴 해외여행 여름 성수기보다 많다

올 추석 연휴(9월22~26일)를 이용해 해외나 유명 휴양지로 떠나는 여행객이 여름 휴가철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여·27·광주시 북구 유동)씨는 며칠 전 추석명절을 이용해 다녀올 수 있는 3박4일짜리 해외여행 상품을 어렵게 구했다. 5일간의 황금 같은 추석연휴 기간을 이용해 친구들과 함께 동남아 관광을 가기 위해서다.

이씨처럼 추석명절을 이용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번 추석명절이 22일(토요일)부터 26일(수요일)까지 5일짜리 황금 연휴인데다 연·월차 휴가까지 이용한다면 오는 10월3일 개천절까지 무려 12일 동안 달콤한 휴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투어가 최근 추석 연휴 해외 여행 상품 예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2만9천514명이 예약해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무려 44.7%나 늘었다. 또 추석 연휴 하나투어의 해외여행 예약객이 2만2천606명인데 반해 올 여름 휴가철 성수기인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해외에 다녀온 여행객은 1만6천411명에 불과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국내선의 경우 22~24일 사이 광주발 제주행 항공권은 이미 동났다. 대한항공과 동방항공 국제선도 22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중국 상하이(上海)행 노선은 이미 100% 예약이 끝났다. 광주시내 각 여행사에는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 장거리 상품을 찾는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다.

엘도라도·금호·중흥 등 국내 유명 콘도도 추석 연휴 예약은 거의 끝난 상태다.

모두투어 광주지점 관계자는 "20~30대들 사이에서는 개별일정으로 떠나는 자유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었고, 가족 단위에서는 단거리인 방콕·푸켓 등 동남아 패키지 상품을 많이 찾았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조선대 총장 선거 결선투표 가나

선거 이틀앞으로…'1강 5중' 합종연횡 가능성

오는 13일 치러질 제13대 조선대 총장 선거가 막판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후보가 몇몇 언론에 '지난주 실시된 총동창회 주관 정책토론회에서 질문지가 사전에 유출됐다'며 특정 후보를 겨냥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총동창회장이 의대 출신인데다 '총장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의대 교수인 상황에서 동창회가 의대 교수인 모 후보가 유리하게끔 사전에 질의 내용을 알려줬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조선대는 그러나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동창회 정책토론회는 총동창회 의결구조와 토론회 준비팀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게 준비했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날 오후 3시 총장후보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일부 언론에 제기된 내용이 사실과 무관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각 후보 캠프에서는 이번 의혹을 제기한 후보 2명을 지목하며 현재 유일하게 '1강'으로 인식되고 있는 모 후보를 견제하려다, 지금껏 비교적 공정하게 이뤄진 선거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총장 선거 후보자(기호 순)는 신인현(53·사범대 과학교육학부)·이용보(60·사범대 과학교육학부)·전호종(53·의과대학 의학과)·강동완(53·치과대학 치의학과)·박대환(52·외국어대 독일어과)· 서재홍(58·의과대학 의학과)교수 등 6명.

선거 초반 '1강·2중·3약''1강·3중·2약'이던 판세분석은 현재 '1강 5중'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당선자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누가 2등을 차지할 것이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2위 득표자와 50표 이상 차이를 벌이지 못할 경우 2·3·4위 득표자가 합종연횡해 결선투표에 진출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 유권자 수는 교수 661표, 교직원 51표, 총학생회 36표 등 총 748표이다. 교수는 1인당 1표씩 행사하며 총학생회도 학생회 간부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이 1표씩 행사한다. 교직원 51표는 투표권이 있는 311명이 모두 투표해 각 후보별 득표수에 따라 표를 나눠 합산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13일 열리는 조선대 총장 선거가 정책토론회·간담회를 치뤄 관심이 고조되자 학생들도 선거 입후보자 명단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사립대 6곳 법정 전입금 미납

광주·전남지역 4년제 사립대 법인 6곳이 지난 2006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대불대는 4억9천5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1.8%인 890만원만을 내놓았다.

광주여대는 2억9천여만원 중 1천만원(3.4%), 호남대는 9억6천400여만원 중 1억3천만원(13.5%), 초당대는 3억3천여만원 중 7천350만원(22.2%), 목포가톨릭대는 7천200여만원 중 2천만원(27.6%), 명신대는 9천500여만원 중 6천여만원(63.2%)을 부담하는데 그쳤다.

반면 광주가톨릭대(8천200여만원)·영산선학대(3천400여만원)·호남신학대(1억2천900여만원)·동신대(8억4천200여만원)·남부대(1억9천500여만원)·광신대(1억2천800여만원)을 전액 부담했다.

또 광주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9억3천600여만원 보다 많은 9억4천500여만원(101%)을 부담한 것을 비롯해 조선대 35억3천700여만원(105.3%)·한려대 1억100여만원(117.5%) 등 3곳은 초과 부담했다.

한편 전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운영수입 총액대비 등록금·수강료 비율)은 지난 2001년 70.1%에서 2006년 77.4%로 최근 6년 사이 7.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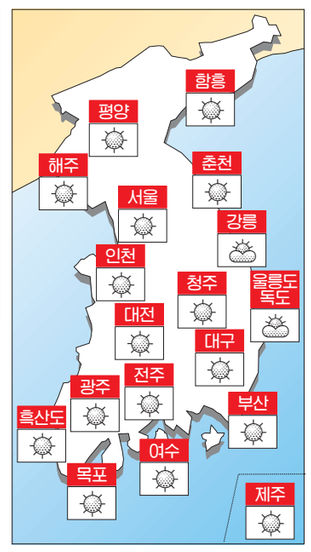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화창한 가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9월 11일 (음 8월 1일) ◇전국날씨

광 주	맑음	18~30℃
목 포	맑음	19~29℃
여 수	맑음	19~28℃
완 도	맑음	18~29℃
구 례	맑음	17~31℃
해 남	맑음	18~29℃
장 흥	맑음	16~29℃
고 흥	맑음	17~30℃
순 천	맑음	16~31℃
영 광	맑음	18~29℃
진 도	맑음	17~30℃
전 주	맑음	18~30℃
남 원	맑음	15~30℃
흑산도	맑음	20~26℃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0.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02:05 14:06 썰물 07:19 19:27
여 수 밀물 09:02 21:23 썰물 02:57 15:01

▲해뜸 06:12 ▲해짐 18:46 ▲달뜸 05:40 ▲달짐 18:3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날 씨						
최저/최고	18/29	19/29	19/27	20/25	19/27	20/26

"사립외고 설립 울산·인천 등과 연대"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울산, 인천시 교육청 등과 외국어고 설립을 위한 연대를 추진키로 했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특목고 설립 사전 협의절차를 다음달 말까지 전면 유보키로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최근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고가 없는 시·도 교육청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설립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외고가 없는 지역은 광주를 비롯해 울산, 충남, 강원 등 4곳이며 인천은 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충남은 교사 신축공사가 거의 끝나 내년 개교가 예상되고 강원은 도 교육감의 학교법인 설립 승인과 설립계획 승인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절차상 어려움이 덜한 점 등을 감안해 울산, 인천 교육청과 연대를 모색중이다.

시교육청은 12일 열리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해당 지역 교육감과 연대방안을 마련하고 외고 등 수월성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교육부 태스크포스에 외고 신설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또 충남, 강원 교육청과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2010학년도 부터는 외고 학생들도 거주지 제한을 받게 돼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광주 학생들의 타지 유출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교육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두발규정에 아들 자퇴시킵니다"

현직교사, 광주교육청 홈피에 게시 파문

현직 교사인 학부모가 "학교 측의 지나친 두발 규정 탓에 아들을 자퇴시킨다"는 내용의 글을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순천 모 중학교 교사인 박모씨는 전날 실명으로 '학교 자퇴 유발한 두발규정 반드시 학생 참여케 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교사와 학교 측에 각성을 촉구했다.

박씨는 이 글에서 "교육부에서는 학생이 참여한 두발규정 마련을 권고하지만 학교장 재량이라는 단서 때문인지, 학생의 통제수단으로 용이해선지 실제 이런 절차를 거치는 학교는 뉴스에서나 볼 수 있다"며 "학생 자치회의 의견수렴 등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참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해당 고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일부라고 소개하며 '자퇴서를 제출하며'라는 제목의 글도 첨부했다.

박씨는 "내 아이는 두발규정 때문에 학교를 기피하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학교폭력, 따돌림, 무단결석 때문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길어서, 복장이 남달라서 요주의 학생으로 분류하는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더 이상 학생이 학교 두발규정 때문에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기자 지망생인 해당 학생의 입장을 고려해 학교로서는 최대한 배려해 지도했다"며 "두발 규정이 자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유학으로 알고 있는데 두발 규정을 못 이겨 자퇴를 한 것처럼 본질이 왜곡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소송 지면 변호사 비용 더 물어야

대법, 26년만에 규칙 개정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이 26년 만에 오른다.

대법원은 1981년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승소 당사자가 패소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거 규칙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한도를 높이고, 세분화해 소송가액 1천500만원의 소액사건(2천만원 이하)에서 패소하면 물어줘야 하는 비용은 85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소송가액 1억5천만원의 합의사건(1억원 초과)에서 패소하면 물어줘야 하는 비용은 28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높였다. /연합뉴스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창업)까지!!
공인중개사과정 [개강:9월3일]
◉과 정 : 주간반(10:00~13:50) 야간반(19:00~22:30)
◉대 상 :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내 용 : 최종 문제풀이(전진도별 진행)
◉교수진 : 한용호·박한수 교수팀(저자직강)
◉기 타 : 이론부족시 동영상 무료제공
주택관리사 최종문제풀이 주말반(토,일)모집중 (개강 9월 8일)
정보기술(IT)과정 (개강:매월초)
◉과 정 : 정보화기초1과정(화,목 19:00~21:00) 정보화기초2과정(월,수,금 19:00~21:00) 자격증(사무자동화)과정(월~금 수시) 컴퓨터활용실무과정(월~금 19:00~21:00)
◉대 상 :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기 타 : 훈련수료 후 개인별 환급(노동부)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세무公務員 1800여명 올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2회 추가 공채 예정 =
7·9級 공무원 완전對備
강좌직종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물리학
◎최선을 다 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개강: 매월 1일과 15일 주·야 (종합단과)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수시접수가능)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9월대개강
1차개강 9월 1일
2차개강 9월 3일
전문대졸업(예정자), 4년제대학 2학년만 마치면
누구나 원하는대학,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개설과목 : 영어, 수학,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TEPS
일반대, 사범대 편입반 | 약대, 한의대 편입반
MEET/ DEET 기본이론과정 | TEPS 최단기 고득점반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뒤) ☎ 227-8088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앤틱의 명품
모디쉬갤러리 秋특가판매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daum 모디쉬갤러리 검색해 보세요! www.modishgallery.co.kr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매트리스별도), 협탁
몽블랑 2+2 가죽쇼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죽쇼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황옥 4人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앤틱전화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아테네 침실세트
Open기념 황토쉘침대, 장수온돌침대 한정판매
HS-6720 비트 1,990,000원 (5조한정판매)
JSD-비토Q 1,470,000원 (5조한정판매)
포르테 거실장세트
미가엘 5단서랍장 | 바시하 2.2 소파 | 미가엘 화장대 | 오베가 대리석 식탁세트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062)252-3001~2 / 금호월드 7층 ☎(062)350-8764